

관음사 목조 관세음보살좌상

- '소통' 삶의 방식을 배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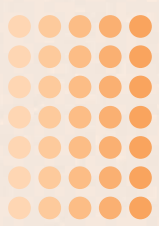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장혜련

문화의 범위는 그 함의하는 바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넓게는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 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좁게는 우리 조상들의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하는 불교 문화재를 통한 제주의 문화를 통해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은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한 글은 아니다. 우리 문화재의 70%가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이고 우리문화 혹은 제주의 문화를 인식하는데 불교문화를 이해한다면 보다 풍부하고 자유롭게 문화의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관음사(觀音寺) 목조 관음보살좌상(觀音菩薩坐像)도 불교문화재의 하나로 오늘 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소통(疏通) 문제를 다시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화두의 역할로 인식한다면 좀 자유롭겠다.

요즘 우리사회는 소통의 막힘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남북문제, 촛불문화, 법조계, 연예계 그리고 작게는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어찌 보면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누군가와 소통하기위해서는 먼저 관계를 맺어야하고 그 다음 서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어야 한다. 관계 맺기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즉 상대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준 이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다 관세음보살에 생각이 미쳤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세음(觀世音)' 보살은 세상에 소리를 듣는 혹은 들어주는 보살이다.

소통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로도 그리고 인류가 이루어놓은 문화적 자산들과도 이루어진다. 유흥준(俞弘濬)은 일찍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말하지 않은 것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문화유산과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하는지를 그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했으며, 문화유산과의 소통을 통한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 그리고 인생의 품격을 논한 바 있다.



〈사진 1〉 관음사 입구

그렇다면 관음사 목조 관세음보살좌상의 매력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관음사(조계종 23교구본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16호인 목조 관세음보살좌상은 대웅전 삼존불 우측에 모셔져 있다. 관세음보살좌상은 1698년에 조성한 것으로 17세기 말 전형적인 불상양식을 두루 갖춘 불상이다.

이 보살좌상의 크기를 보면 전체높이 75cm로 얼굴높이 14cm, 어깨너비 34cm, 무릎높이 13cm, 무릎너비 47cm의 좌상이다. 보살상 머리에는 삼산보관(三山寶冠)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씌운 것으로 보관 정면에 커다란 꽃무늬가 여덟 송이가 배치되어 있고 좌우로 장식이 있는 전형적인 조선후기 보관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사각형이루고 있지만 평면적인 인상에 머물지 않고 한층 양감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표정과 눈·코·입이 단아하면서도 미소를 머금은 모습은 당대의 수작(秀作)임에 손색이 없다. 이 보살상은 예천 용문사의 목각탱화(1684)의 관음보살상(보물 989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결 유연하고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좌상은 체구 또한 사각형에 가까운 형상이지만 어깨나 무릎이 둥글게 처리되어 한결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가슴이나 신체 각부분이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어 역시 단아하고 우아하다.

수인(手印)(손의 모양)은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 올려져 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다. 옷은 통견의(通絹衣)로 두께 있는 표현과 간략한 의문선(衣紋線)은 당대의 불의와 유사하지만 양감 있는 질감과 유연한 옷 주름 등은 세련된 모습이다. 가슴의 승각기(僧脚歧) 상단은 꽃무늬 형태이며 왼쪽 무릎 위로 드리워진 가사의 안감이 3단으로 주름진 것 등이 17세기 후반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진 2〉 관세음보살좌상

이상은 관세음보살상에 대한 미학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그친다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관세음보살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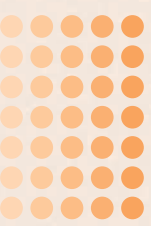
이 관세음보살좌상을 보고 있노라면 푸근한 어머니의 품 같은 안온함과 넉넉한 미소는 언제까지나 이어질 푸념을 다 들어 줄 것 같고 우리의 고통을 털어주고 위무해 주어 삶의 갈등이 해소될 것 같은 소통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어느 절에 가든지 관세음보살이 있다. 관세음보살을 줄여서 관세음이라고도 하는데, 성관음, 마두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 준제관음, 천수관음의 6관음이 있고 이 외에 많은 관세음보살이 있다.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근본서원으로 하는 보살로 우리나라에서는 석가모니부처나 아미타부처보다도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인 관세음신앙을 더욱 크게 생각하기도 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불교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 혹은 인류와 함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아마도 인간위주의 종교적 성향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일정한 역할로 기능이 분화되어진 것이 그 한 예이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부처로 인식하는가 하면, 아미타부처님은 죽은 이들을 극락인 서방정토로 인도하는 역할로,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서원을 세운 보살로,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현생의 고통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부여하여 현재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해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음보살은 각 사찰마다 다른 형태로 모셔져 있다. 때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필하는 협시보살(挾侍菩薩)로 혹은 단독의 전각에 모셔져 있다. 관세음보살을 쉽게 분별하는 방법으로는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기도 하고, 감로병(甘露瓶)을 들고 있기도 하는데, 가장 쉽게 분별하려면 보관(머



리에 쓰고 있는 관) 중앙 정수리에 자그마하게 아미타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살펴보면 된다. 이러한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을 관음전(觀音殿) 또는 원통전(圓通殿)이라고 한다.



〈사진 3〉 관음사 대웅전 삼존불 우측에 모셔진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여기서 ‘관세음’이란 말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라는 뜻이다. 언제나 세상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는 항상(恒常)된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상대방을 향한 귀기우림을 지나 세상에 대한 열린 시선, 열린 마음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지향하고자하는 자비의 실천 방식이다. 그리하여 우리 서민들에게 석가모니부처님보다 훨씬 친근한 모습과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 삶과 애환을 어루만지던 보살이다. 그래서 예전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호명하게 되는 부처님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의 명호 앞에는 수식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천수천안(千手千眼)이요, 구구구난(救苦救難)이다. 천수천안의 의미는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해 필요했던 손길이 곧 천수인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고통을 직시하려는 의지가 천개의 눈으로 형상화 되어 천안이 된 것이다. 그런 다음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는 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음보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소통의 모범을 보여 준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자기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친구나 동반자를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러므로 소통은 자신을 우리에게로 그리고 모두에게로 확대시켜 나가는 확장된 삶을 말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로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통’ 그것은 관세음보살에게서 배우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